

포르투칼, 2011 농약수요 3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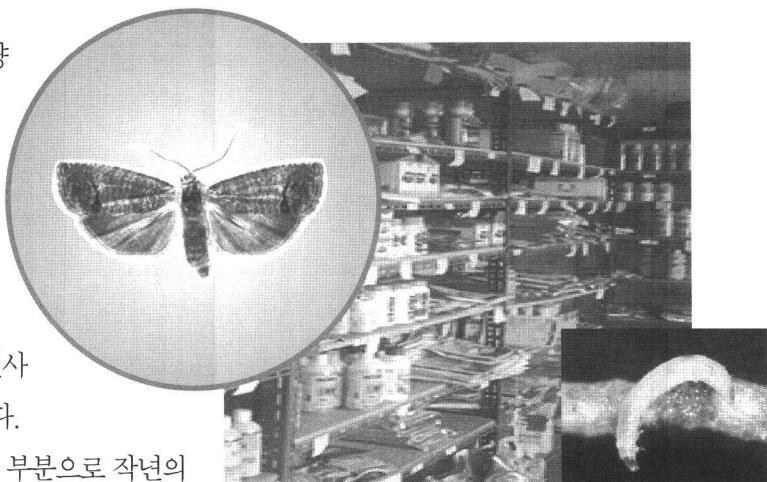
지난해 포르투칼의 농약수요량은 2.7% 늘어난 120백만유로를 기록했다고 포르투칼 작물보호협회(Anipla)가 전했다. 이는 공식집계인 6.6% 성장한 130백만유로보다 낮은 것으로 자국 시장의 95%를 차지하는 14개 회원사의 자료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이다.

살균제 시장은 여전히 가장 큰 부분으로 작년의 기상조건에 의해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다. 매출은 7% 증가한 54.4백만유로를 기록했으며, 노균병과 흰가루병의 방제를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. 불규칙한 날씨로 인해 특히 침투이행성이 강한 제품의 매출이 증가했다.

살충제 시장 역시 8%의 큰 성장을 이어가 24.9백만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. 이는 사과, 배 및 감자에 발생하는 토마토 잎나방벌레(*Tuta absoluta*), 코들링나방(*Cydia pomonella*), 그리고 벼룩잎벌레(*Epitrix spp*) 등의 대량발생에 기인한다.

하지만, 제초제 시장은 4% 가까이 감소한 37.7백만유로를 기록했다. 비가 내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날씨로 인해 제품을 살포할 시기가 제한된 데다가, 밀, 보리, 감자 등 주요작물의 재배면적이 줄어든 탓이다.

생조제 등 기타 농약부분 역시 18% 가까이 감소하여 3백만유로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.



전체시장은 연초의 2개월동안 감소된 시장상황이 봄철 작기의 시작을 기점으로 회복되어 평년수준의 성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.

(단위 : 천\$)

구 분	2010년	2011년	% 변화
살균제	50,890	54,350	+6.8
살충제	23,120	24,900	+7.7
제초제	39,148	37,700	-3.7
기 타	3,888	3,200	-17.7
총 계	117,046	120,150	+2.7

호주, 2011 농약수요 13% 큰폭 증가

지난해 호주의 농약수요량은 13%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총 2,420백만 호주달러(한화 약 3조원)를 기록했다고 호주 농약수의약청 APVMA(Pesticide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)가 전했다. 제초제 판매는 5%가량 늘어난 1,251백만 호주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전체 호주 농약시장의 52%에 해당한다. 살충제 역시 1/3 이상 증가하였고, 살균제 시장은 기존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48% 상승하였다.

호주에는 2011년 기준 총 6,687개의 농약품목이 등록되어있으며, 이는 전년도의 6,241개보다 대폭 증가한 숫자이다. 구성은 제초제는 2,130 품목, 살충제 1,098 품목, 살균제 619품목 등이다.

(단위 : 백만 호주달러)			
구분	2010년	2011년	% 변화
제초제	1,192.6	1251.8	+5.0
살충제	292.0	389.8	+33.5
살균제	157.4	231.1	+46.8
가정용 살충제	135.1	144.9	+6.9
종자처리제	36.9	36.5	-1.1
혼합제 (살균살충 등)	25.4	25.9	+2.0
기타	303.1	340.6	+12.4
총계	2,142.5	2,420.6	+13.0

*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30일에 끝남

호주, 작물재배 면적 증가예상

호주의 2011/2012년에 걸친 하작물 재배면적이 3.6% 증가한 총 1.6백만ha를 기록할 전망이다. 호주의 농업자원경제원(ABARES)는 지난해 11월 대부분의 하작물 경작면적이 1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

사탕수수만이 6.2%의 감소한 632천ha가 예상된다. 이는 작년에 1% 남짓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. 사탕수수의 재배면적이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는 뉴사우스웨일스 지역과 퀸즐랜드가 입은 홍수에 기인한다고 농업자원경제원은 밝혔다. 하지만, 이를

제외한 작물 재배면적은 작년도 홍수피해 이전 수준으로 대체적 회복됐다. ↗

작물	2010/2011	2011/2012	% 변화
사탕수수	674	632	-6.2
목화	590	600	+1.7
수도	75	109	+45.3
옥수수	61	77	+26.2
해바라기	29	40	+37.9
기타	83	109	+31.3
총계	1,512	1,567	+3.6